

한국문화와 그릇된 교육의식 및 관행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연구와 토론의 방향은 주로 교육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교육담당자의 그릇된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그릇된 관행,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의식이나 관행의 원인이 되는 문화적인 토대를 살펴보았다. 우선 동양문화의 특징을 집단주의 혹은 관계지향적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문화의 특징은 첫째,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외적인 사회적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개인의 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보다 우선한다. 둘째, 상호호혜성의 규범이 은혜를 입거나 호의를 받은 것을 빚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갚는 것을 의무로 한다. 셋째, 사회적 행동이 타자지향적이다. 넷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규범적 형태는 조화와 원활함을 유지하고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는 것이다. 한국문화의 특징으로는 첫째, 집단성이 강하다. 따라서 개인이 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또 개인이 집단 속에서 미분화된다. 둘째, 정서성이 강하다. 셋째, 샤머니즘적 전통이 강하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의 성패를 운명으로 돌리고, 적극적인 성취욕이 부족하여 체념에서 오는 낙천주의와 수용성이 강하다. 넷째, 유교전통이 강하다. 따라서 남존여비사상이 강하고 조상숭배나 형식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적인 풍토에서 학부모들이 그릇된 교육관행을 지속하는 이유는 첫째로 남이 하니까 한다. 둘째는 나만 안 하면 자녀가 피해를 받을까봐 두렵다. 셋째, 나의 자녀를 남과 다르게 차별화한다 등으로 나타난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문화적인 토대와 개개인의 의식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부모 스스로가 집단주의적 사고와 행동경향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수반되는 지나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회문화적으로도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각 분야에서 자행되는 부정과 비리현상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직접, 간접

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등의 초
 등교육에서부터 대학에 이르는 고등교육까지 광
 범위하게 걸쳐서 일어나므로 초미의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를 척
 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토론의 방향이 주로 교
 육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학교운영자 및 교
 육담당자의 그릇된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김신일(1994)은 교육계의 부정과 비
 리를 바라보는 주요한 시각을 다음의 다섯가지 관
 점으로 정의하였다. 첫째는 일시적 사회병리현상
 이라는 관점, 둘째는 개인차원의 도덕적 문제라는
 관점, 셋째는 학교와 대학의 조직관리차원의 문제
 라는 점, 넷째는 입시제도, 교육재정구조 등, 교육
 제도차원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다섯째는 교육체
 제의 환경을 구성하는 사회풍토와 정치경제체제
 의 문제라는 관점이다. 그리고 그는 지난 100여년
 간의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의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우리사회 제반사회현상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사회구조와 제도의 차원
 이었으므로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에 관한 논의도
 이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육계의 비리라고 지적된
 100여가지 항목을 일선교사, 대학원생, 학부생, 그
 리고 교육학자들 50여명에게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항목을 고르게 한 한준상(1994)의 조사
 에서 나타난 사례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 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불법과의,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 등의 극소수항
 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학교운영자와
 교육담당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교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학교운영
 자 및 교육담당자의 그릇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
 지 않으면 이런 사회적 병리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의 문제점
 은 교육에 직접,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
 체인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를 지

표 1. (이 표는 한준상(1994) 논문 p12에서 인용)

1. 교육재정비리
사학재정의 빈곤
촌지
교복관련 금품수수
각종 잡부금 징수
예결산 비공개
‘어린이 신문강매’
학습부교재 채택
교육기자재 매입
불법과의
수익금 운영
각종 성금모금
2. 인사와 승진의 비리
우수교사 표창
주임교사 및 담임배정
교사들의 근무지 발령 관련문제
근무평정 왜곡
3.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관련 비리
연구학교 지정 및 시범학교 운영
특수학급 관련비리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
민주적 교육의 실종
교육행정의 독자성 상실
4. 교권비리
교장에게 대화비 지급
내신점수 조작
사립학교 여교사 출산휴가 제한
5. 대학비리
교수, 강사채용관련 기부금 수수
재단의 재정관리부실(사립의 경우)
편파 인사
학생회간부 우대
논문 조작
표절
특정인에게 학위편의 제공
편파적 연구비 지급

6. 각종 학원의 비리
비전공 강사 채용
세금 포탈
과대 광고
부교재 채택

속시키고 확산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을 논외로 한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는 학
부모와 학생은 교육계의 비리와 부정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진다. 따라서 부정과 비리
를 범한다고 여겨지는 교육담당자에 대해 피해자
적인 학부모나 학생이 기대하는 교사상에 대한 연
구는 많이 있지만(예를 들면 안명진, 1992; 문태
식, 1990; 권수정, 1990 등) 교육담당자인 교사가
바라는 학부모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크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를 보다 근원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주체인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한다. 즉 학부모
나 학생의 교육에 대한 그릇된 관행, 그리고 이러
한 그릇된 의식이나 관행의 원인이 되는 문화적인
토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부
모나 학생도 그릇된 관행이라고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동조하고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를 유지시키게 되는 문화적이고 사회심리적
인 기제를 이해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기제를 살펴보는 것
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주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의
식하고 인정하면서도 행하는 교육에 관계된 그릇
된 관행”의 문화적 토대와 사회심리적 기제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릇된 관행임을 알면서도
동조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강
요, 교사에게 촛지제공, 학교에 대한 다양한 명목
의 기부금제공,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
면서까지 무릅쓰는 과외, 학원수강등의 과대한 사
교육비지출등이 있다. 그릇된 관행임을 알면서도

학부모가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
부모들이 밝힌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이 하니 나도 한다.

둘째, 나만 안하면 자녀가 피해받을까봐 불안
하다.

셋째, 나의 자식을 남과 다르게 차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공통적인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양문화와 우리 문화
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동양문화의 특징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특징간의 차이를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는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자들 사
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인류학자 Hsu(1972)에 의하면 한 문화를 구성
하고 있는 개개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
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중
요시하는 가족관계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가족관계의 본질은 가족의 여러 구성원들 중
에서도 제일 중시하는 관계가 누구와 누구사이의
양자관계를 핵심으로 하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에서 나타나는 관계는 아버지와 아
들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구조이다. 아버지-
아들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는 다음과 같
은 속성을 지닌다.

첫번째 속성은 포괄성(inclusiveness)이다. 아
버지는 하나지만 보통 아들은 여럿이 있다. 그리
고 사실상 아들 하나이더라도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아들을 원한다. 그러므로 한 아버지와
여러 아들로 구성되는 관계에서는 배타적 속성보
다는 포괄적인 속성을 보인다.

두번째 속성은 연속성(continuity)이다. 모든
아버지와 아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아버지-아들

간의 관계속에 놓여 있다. 즉 모든 아버지는 한때 할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 할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마찬가지로 아들은 장차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된다. 이같은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간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세번째 속성은 권위(authority)의 강조이다. 이 가족구조에서는 가부장권이 강하게 나타나고 아버지가 내리는 결정에 가족구성원이 승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당연히 강조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은 최소화되거나 무시되는 非性的(asexuality)인 속성을 지닌다. 부부간의 수평적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간의 수직적 관계에 역행하는 것이고 관계유지에 위험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나 그 관계의 표현이 제한적이고 억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화속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보다는 집단에 의존하고 집단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조장된다. 따라서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이와 아울러 같은 집단내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협조적이고 강한 응집력을 보이지만 동시에 집단외의 사람에게는 비타협적이고 배타적인 경향을 보인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차이를 연구한 대표적 심리학자인 Triandis(1983)도 서양문화를 개인중심의 문화로, 동양문화를 집단중심의 문화로 규정한다. 그는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의 차이를 기초로 해서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자기 자신보다는 내집단의 관점, 필요 및 목표에 더 강조를 한다.

둘째, 개인의 즐거움보다는 내집단에 의해 규정된 사회적 규범이나 의무에 더 강조를 한다.

셋째, 내집단과 구별되는 자신의 신념보다는 내집단과 공유하는 신념을 더 강조 한다.

넷째, 내집단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조화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내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연대감과 협력, 그리고 동조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외집단원에 대해서는 경계와 경쟁, 그리고 반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경향과 아울러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당연하고 있는 사안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Leung(1988)의 연구도 이 점을 지지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보다 낮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반면에 친구와의 갈등은 덜 경험한다.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자들은 내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집단주의적이고 외집단원에게는 오히려 개인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Ho(1993)는 동양문화를 집단주의적이라는 용어 대신 관계지향적(relation-oriented) 문화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관계지향적 문화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주제(theme)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첫째는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외적인 사회적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개인의 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그리고 사회체제내에서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사회적 행동의 강력한 결정요인은 외부에 존재한다. 즉 개인 외적인 요인에 의해 사회적 행동이 주로 결정된다. 또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무를 완수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한다.

둘째, 상호호혜성의 규범이 은혜를 입거나 호의를 받은 것을 빚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갚는 것을 의무로 한다. 이와 같은 관계지향적 문화에서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되돌려 받으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호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되돌려줌으로써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의 불균형을 회복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수혜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호의를 갚을 것이라는 것이 기대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제재가 가해진다.

셋째, 사회적 행동이 주로 타자지향적(other-directed)인 특성을 보인다. 이 타자지향적인 특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고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타자지향적인 문화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제재는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 추방하거나 배척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승인을 얻는 것보다는 사회적 불승인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넷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규범적인 형태는 조화와 원활함(smoothedness)을 유지하고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다른 개인의 독특성을 표현하거나 주장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기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주요한 사회적 기술로 간주된다.

다섯째, 집단에 대한 동조를 강조한다. 집단주의적이고 타자지향적인 성향과 대인관계에서의 원활함의 강조는, 따라서 개인에게 사회적 규범에 동조하고 집단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문화의 특징과 추세

우리나라도 동양에 속해 있으므로 지금까지 언급한 동양문화의 특성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나라는 나라마다 독특한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므로 공통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강도나 표현은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학자 최재석(1965)은 옛부터 사용되는 말의 내용분석을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성격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로, 가족주의이다. 가족집단의 유지와 기능에 가치부여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부자관계에서의 효를 절대시하고 남존여비를 인정하며 생활집단의 단위로 가정을 중시하고 가족관계와 같은 대인관계를 사회관계의 이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로, 권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관리직을 존중하고 이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며 또 자타가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로, 신분계층의 질서유지를 위해 상하층별로 행동양식이 뚜렷하게 분화되어있고 이를 이행해나가는 형식적 행동양식이 잘 발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질서의식, 사양심, 눈치를 보는 것, 그리고 상하관계의 엄수등이 이러한 경향에서 유래된다.

넷째로, 집단에 의존하기 위하여 파벌형성의 정당성과 파벌적 행동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로부터 각 개인이 제대로 분화되어있지 못하다. 즉 개성발휘가 잘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개인생활이 무시되고 사회구성원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개인화나 개인의 책임감을 그리 내세우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한국문화의 특징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밝히려는 연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차재호(1980)는 외국인이 한국인을 관찰한 문헌들을 조사하여 행동, 신념 및 태도, 가치의 세 범주로 나누고 요인구조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구한말부터 해방후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행동특성

- 1) 눈치를 본다 - 한국인들은 남의 생각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남들과 어긋나는 자기의견을 표명하지 못한다.
- 2) 의존심 - 타인에게 의지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질 줄 모른다. 그리고 혼자하는 일이 없고 가정이나 단체가 후원해 주어야 한다.
- 3) 명분의 존중 - 실리보다 명분에 집착하고 체면을 잃을까봐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한다.
- 4) 상하의 구별 - 자기의 공을 국가수뇌나 부모에게 돌리는 겸양지덕을 보인다.

- 5) 감정과 의욕의 억제 - 정서적으로 내향적이고 불안하며 받은 복이나 원한을 오래 마음에 간직한다.
- 6) 추리력, 창조력의 결여 - 사고의 융통성이 없고 추리력과 추상화 능력이 부족하다.
- 7) 향학심이 높다 - 교육열이 높고 자녀를 집에 붙잡아 두고 공부만 시킨다.
- 8) 정겨움 -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친절하다.
- 9) 사생활의 침범 - 사생활을 침범하고 지나친 친절을 베풀며 혼자있고 싶어하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 10) 손님접대에 후하다 - 손님에게 공손하고 대접을 후하게 하며 평화적이다.
- 11) 공사의 혼동 - 뇌물을 많이 주고 받으며 연고위주의 임용을 한다.
- 12) 버릇이 없다 - 사교적으로 세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세지고도 고마와할 줄 모른다.
- 13) 장기적인 결심을 못한다.
- 14) 비합리적인 사고.
- 15) 감시하지 않으면 법을 안지킨다.
- 16) 종교심이 강하다.
- 17) 사치를 좋아한다 - 입는 옷에 관심이 많고 화려한 것을 입는다.
- 18) 외모나 옷매무새가 단정하다.
- 19) 용감하다.

(2) 신념과 태도

- 1) 상하의식, 2) 경로사상, 3) 스승에 대한 존경, 4) 조상숭배, 5) 기술천시, 6) 충효사상, 7) 질투나 잔인함에 대한 부정, 8) 폐쇄적인 '우리'관, 9) 현세주의, 10) 한국적인 것의 과대숭상.

(3) 가치

- 1) 효, 2) 학문, 3) 아들과 자손번창, 4) 조상, 5) 자연, 6) 장생과 장수, 7) 돈과 부, 8) 평화, 9) 인정(認定), 명예, 10) 大食, 大飮, 11) 무사안일, 12) 인간관계중시.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100여년동안 지속된 행동특징을 그는(1994), 1) 감정주의, 2) 의존성향, 3) 정애주의, 4) 후한 인심, 5) 비합리성, 6) 높은 교육열, 그리고 7) 위계주의의 7개 차원으로 요약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는 현재의 한국인에게서 보여지는 행동특성 중 시정해야할 것과 조장해야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시정되어야할 행동특성

- 1) 자기의사를 당당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것
- 2) 의존적 성향이 강한 것
- 3)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 4) 감정과 의욕을 억제하는 것
- 5) 공사를 혼동하는 것
- 6) 감시가 없으면 법을 안 지키는 것
- 7) 장기적인 결심을 못하는 것
- 8) 권위주의가 강한 것
- 9)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 10)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
- 11) 기술을 천시하는 것

(2) 조장해야할 행동특성

- 1) 정겨움이 많은 것
- 2) 교육열이 높은 것
- 3) 경로사상이 많은 것
- 4) 예의바른 것

고순덕과 그의 동료들은 미국에 이민가서 살고 있는 한국계, 일본계 노인 및 백인노인들의 인지적 도식을 연구하였다. 한 사회체제나 문화체제 속에서 학습된 행동이나 형성된 성격에 관련이 있는 가치, 태도, 규준 또는 도덕을 인지적 도식이라 정의하고 이 도식이 정보처리과정에서 중추적인 인지적 단위로 작용하여 과거경험을 통괄하고 조직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계 노인들과 일본계 노인들은 집단성, 의무와 책임, 계급의식, 복종성, 그리고 의존성이 두드러지게 강하다. 또 의사전달방식이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간접적이고, 존중하는 가

치면에서는 연장자와 교사를 존중하며, 수용적이고 협조적이고 경쟁적인 태도와 효도가 강조되었다. 이외에도 한국계 노인들은 의사표시에 있어서 집단내 일치경향성이 높고, 가족의 명예와 친척에 관심이 많고, 특히 한국사회와 문화 및 정부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였다(김성태, 1987에서 인용).

또 군집분석과 판별분석을 통해 알아본 한국계 노인과 일본계 및 백인계 노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계 노인은 자신의 인종, 전통, 그리고 문화에 대해 강한 동일시를 느낀다.

둘째로 한국계 노인은 백인계노인의 특징인 개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기주장성도 비교적 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이들 이민 온 노인들이 대부분 도시출신이고 기독교인이 많아서 이들의 의식에 민주주의와 자유기업, 그리고 인종 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로 한국계노인은 의사표시에 있어 집단내 일치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이는 한국인이 집단내 유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소개한 연구이외에 다른 사회과학자들이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공통된 성격을 연구한 결과를 개관하면서, 김성태(1987)는 다음과 같이 한국문화의 특징을 요약하였다.

첫째로, 집단성(collectivity)이 강하다. 최재석(1965)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한국문화는 가족주의를 강하게 나타내므로 개인이 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또 개인이 집단속에서 미분화되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이 강조된다. 이는 차재호(1994)의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행동 특징, 즉 타인의 흠을 너무 중시하여 개인의 흠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차재호의 이전 연구(1980)에서도 한국인이 태도면에서 가족주의, 집단주의경향이 세고, 행동면에서도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협동과 복종이 강조되는 집단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정서성(emotionality)이 강하다. 사람이 환경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해가는 과정

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재나 과거에 감각하고 기각한 내용 그 자체를 어떤 형식으로 전환시켜서 환경에 적응하는데 적용시키는 인지과정이다. 또 하나는 상황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개체 자체속의 어떤 변화를 유발시켜서 환경에 적응하는 목표를 달성시키는데 적용되는 정서과정이다. 이 두 과정은 한가지 반응의 두 측면으로서 동시에 나타나며, 사전이나 상황에 따라 한쪽이 우세하고 다른 쪽은 약해지기도 한다. 한국인은 환경에 적응하고 대인관계를 맺는데 있어 다분히 정서과정을 우세하게 보인다.

이는 차재호(1980)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이 중시하는 여러 가치 중에서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이 관계를 정에 의해서 주로 맺어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1994) 조장하여야할 행동특징으로 정겨움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정겨움은 인간의 가장 큰 욕구들 중의 일부인 친애욕구(need for affiliation), 구호욕구(need for succorance) 및 양호욕구(need for nurturance)를 만족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와 아울러 정겨움이 의존성 혹은 남의 사생활 내지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역기능을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셋째는, 샤머니즘적 전통이 강하다. 따라서 자기행동의 성패를 운명으로 돌리고, 그로 인해 자책감이나 주체의식이 약한 편이다. 또 제반현상이 신령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믿어 적극적인 성취욕이 부족하고 체념에서 오는 낙천주의와 수용성이 우세하다.

샤머니즘적 전통이 강한데서 오는 피해를 차재호(1994)는 비합리적 사고를 따르게 하는 경향의 원인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사고가 정 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심각한 결과가 유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에 대한 고려가 끼어들면 처음에는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계획이 극히 비합리적인 계획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합리적인 사고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비합리적인 사고의 또

다른 예는 실리를 도외시하고 실리 외적인 사항(예컨대 명분)을 고려에 넣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엄격한 평가에 의해 실질적으로 한 일의 양이나 질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런 까다로운 일의 기피는 무사안일이라는 특성을 낳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교전통이 강하다. 따라서 남존여비사상이 강하고 조상숭배나 형식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앞에서 소개한 최재석(1965)의 연구에서도 유교적 전통을 찾을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우리 문화의 특징은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관계에서의 효를 절대시하고 남존여비를 인정한다. 또 권리의 권위를 지나치게 인정하여 권위주의를 낳게 되며, 신분계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하층별로 행동양식이 뚜렷하게 분화되어 있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형식적 행동양식이 잘 발달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고순덕 등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점에 대해서 차재호(1994)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하였다. 그는 한국민의 현재의 국민성에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짐작되는 중요한 두가지 요소로 유교와 조선조 후기의 정치형태를 들고 있다. 그는 특히 조선조 후기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었던 유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1) 통제에 대한 관심
- 2) 질서에 대한 관심
- 3) 복종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관심
- 4) 타인의 복에 대한 관심
- 5) 친애감정을 토대로 한 인간관계에의 치중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문화의 특징은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개인주의적인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의 결과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31세에서 65세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한성열과 안창일(1990)의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젊을수록,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집

단주의적 경향이 줄어든다. 또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김성태(1990)의 연구에서도 가족간의 역동관계가 서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자식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나이가 젊을수록 배우자의 심리적 유대가 강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자식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지적하는대로 우리사회는 현재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규범부재(anomie) 현상을 보인다. 즉 집단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함께 나타난다.

학부모의 그릇된 의식과 관행

지금까지 살펴본 동양문화와 한국문화의 특징을 기초로 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 학부모들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속하고 있는 교육관행의 심리적 기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석에 앞서 먼저 밝히고자 하는 점은 차재호(1994)도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주요 원동력이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열에 힘입은 양질의 노동력은 우리 사회가 자랑할 수 있는 국력의 제1차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을 인정한다고 해서 교육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릇된 의식과 관행자체가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높은 교육열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들이 우리의 국력을 낭비하고 높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 또한 과감하게 시정해야 할 것이다.

남이 하나까 한다

학부모 자신이 그릇된 것인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교육관행을 행하는 첫번째 이유로 지적한 것은 “남이 하나까 한다”는 것이다. 이 의식의 밑바탕에는 앞서 언급한 동양,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인이 있다. Ho(1993)가 지적한 대로 동양문화는 타자지향적인 문화이고, Triandis(1983)에 의하면 동양문화에서는 내집단과 구별되는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기보다는 내집단과 공유하는 신념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경향을 한국문화의 특징으로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예를 들면, 최재석, 1965 ; 고순덕 등, 1987 ; 차재호, 1980, 1994)에서 빠짐없이 지적되는 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에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탐색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불인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보다 부모로서의 도리나 의무가 강조된다. 즉 차재호(1994)의 표현대로 하면 자신의 옳보다는 타인의 옳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때 불인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이나 의견을 공유하려고 하는 집단은 주로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일 경우가 많다. 즉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자신의 내집단원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과 유사한 지위나 계층 혹은 친척이나 친구 등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행동양식에 동조하게 된다. 이때 선택되는 준거집단 구성원 속에는 존지를 제공하고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학부모가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외를 시킨다던가 존지를 제공하는 대상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현저성의 효과(effect of salience)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유로는 첫째, 대중매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대중매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체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과외를 한다거나, 또 고액과외니 쪽집게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는 모두가 존지를 제공하거나 과외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둘째로는 과

외를 하거나 존지를 제공하는 학부모들이 그 효과를 과대선전한다는 점이다. 그들 스스로도 이러한 관행이 그릇된 것임을 의식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과 다른 행동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는 한 방편으로 그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관행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과 아울러 허위일치성(false consensus)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유사한 생각과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과외를 시키거나 존지를 제공하는 학부모들은 다른 학부모들도 자기와 유사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편향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외나 존지의 효과가 크다고 믿게 되고, 다른 학부모들도 다 그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이 맞물려지면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지속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나 자신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로 준거의 대상이 되는 남이 된다는 사실이다. 즉 남들이 하나까 나도 한다는 점이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과외나 존지를 제공하는 또 다른 남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남이 하나까 나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남들도 다 하나까 나도 한다는 식의 악순환을 형성하게끔 비밀을 제공하게 된다.

나만 안하면 자녀가 피해받을까봐 두렵다

두번째로 학부모들이 그릇된 관행을 지속하는 이유로 지적한 것은 “나만 안하면 자녀가 피해받을까봐 두렵다”는 생각이다. Ho(1993)가 지적한 대로 관계지향적인 문화에서는 상호호혜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이 대인관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사회심리학에서 많이 지적되듯이 상호호혜성의 규범은 동양문화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에서도 대인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강도나 내용면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 김성태(1987)나 차재호(1980, 1994)도 지적했듯이 우리 문화에는 정이나 친애 감정을 토대로 한 인간관계가 특징이다. 즉 우리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고 갈등을 피해야만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차재호(1994)에 의하면 친애감정을 토대로 한 인간관계에서는 애정(love, care, consideration)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과 가질 수 있는 갈등을 도외시키고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중시하고, 반면에 갈등이 일어난 후 이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피해왔다. 따라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기존의 인간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이를 풀어갈 수 있는 사회적인 규범이 덜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에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사고가 발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자신이 다른 인간관계에서 싫어할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고, 또 다른 인간관계에서 남에게 행하라는 규범이 강하게 강조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한다는 의식이 발달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으면 이것을 일종의 부채로 생각하게 되고 가능하면 빨리 여러가지 방식으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즉 심리적인 불균형 상태에서 빨리 균형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당연히 나에게 호의를 되돌려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교육담당자에게 존지 등의 호의를 베풀면 그 담당자는 자신의 자녀에게 유형, 무형의 방식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너를 많이 지목하시느냐?” 혹은 “선생님이 너를 귀여워 하시느냐?” 등의 질문을 통해 자신이 베풀 혹은 베풀지 않은 호의의 결과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경우 그 원인을 호

의에 외부귀인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신이 호의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가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외부귀인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교육담당자가 존지 등의 호의를 받은 경우 그 학생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하는 경우가 아주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아울러 다른 학부모들이 존지를 주어서 호의적인 관심을 받는 경우, 나만 안하면 내 자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중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행하고 학부모들이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려는 한 방편으로 그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서 점차 현실적인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내 자식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이 하는대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식의 사고가 조장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 된다.

둘째로 지적할 점은 최재석(1965)이나 차재호(1980, 1994)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문화에서는 교사나 관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려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군사부일체”라는 용어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동일하게 교사의 권위를 인정한다. 교육담당자를 존경하고 아끼는 것은 계속 조장해야 할 우리 문화의 좋은 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하여서 교육담당자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강하게 보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많아진다. 왜냐하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교육담당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면 이것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고, 반대로 호의를 베풀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강하게 대비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나만 안하면 피해 받을 까봐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동

양문화 혹은 우리 문화에서는 자신의 즐거움이나 선보다 다른 사람의 선을 더 강조하고 권리보다는 의무나 책임을 더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학부모 자신의 권리나 즐거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부모의 의무나 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따라서 남과 같이 해주지 못해서 내 자녀가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도리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무리를 해서라도 최소한 남이 하는 만큼은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되고, 부모의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이 실제적인 면보다는 명분을 강조하는 경향과 결합하여서 더욱 이러한 생각을 조장하게 된다.

나의 자녀를 남과 다르게 차별화 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지적한 세번째 이유는 자신의 자녀를 차별화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첫번째와 두번째 이유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과 심리적 기제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Leung(1988)이 지적한대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내집단들 사이에서는 집단주의적이지만 외집단원들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즉 내집단원들 사이에서는 동조와 협력이 강조되지만 외집단원들과는 반목과 경쟁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내집단과 외집단을 가르는 기준은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즉 같은 친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외집단이 될 수 있다. 대학 진학을 우선시하고 학업성적만으로 진학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육풍토 속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빼고는 모두가 경쟁해야 되는 외집단원이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친족끼리의 협의나 동조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승리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내 자녀 외에는 모두 외집단원

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녀가 남보다 학업성적이 뛰어나야 하고 달라야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된다. 차재호(1994)도 지적하였듯이 우리 문화에서는 갈등을 피하고 조화와 협동을 강조하다 보니 공개적인 경쟁 상태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사회적 규범이 덜 발달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준과 합리적인 수단을 모색하고 서로 자제할 수 있는 원칙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무거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만은 남들과는 다르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극단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즉 모든 학부모들이 서로 무한경쟁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는 신분이나 지위에 의해서 개개인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봉건주의적 사회구조에서 벗어난 지금 교육을 통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과 맞물려 더욱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 그릇된 것인 줄 알면서도 동조하게 되는 관행과 의식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 글은 엄격한 경험적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동양문화와 우리문화의 특징을 연구한 기초의 연구들의 문헌조사를 통해서 추론을 해본 것이다. 따라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이나 교육담당자의 그릇된 관행에 초점을 맞춘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게 된 문화적인 배경과 학부모의 의식면에 대해 살펴 보았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문화적인 토대와 개개인의 의식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권수정(1990). 바람직한 국민학교 교사상에 관한 조사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태(1987).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인문논집.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32, 119-134. (1990).
- 김성태(1990). 한국노인의 인간관계와 생활 만족도. 미발표 보고서.
- 김신일(1994). 교육비리의 실태와 구조적 배경.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 한국사회과학도서관 창립 1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 문태식(1990). 학생, 학부모가 기대하는 국민학교 교사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명진(1991).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사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재호(1980). 한국인의 성격과 의식. 한상목, 차재호, 이문웅, 양춘, 안병만, 신유근 편, 문화의 연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 차재호(1994). 문화설계의 심리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재석(196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민음사.
- 한준상(1994). 교육계의 비리와 병리현상.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 한국사회과학도서관 창립 1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 Han, S. Y., & Ahn, C. Y. (1990). Collectivism and its relationships to age, Education, mode of marriage and living in Korean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 No. 1, 117-127.
- Hsu, F. L. K. (1972). Kinship and ways of life: An exploration. In. F. L. K., Hsu(Ed.).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Publishing Company, Inc. Schenkman.
- Ho, D. Y.(1993). Relational orientation in asian social psychology. In Kim, U., & Berry, J. W.(Ed.). *Indigenous Psychology*. Sage publications, Inc. Newbury Park, London & New Delhi.
- Leung, K. (1988). Some determinants of conflict avoidanc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 125-136.
- Triandis, H. C. (1983).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Korean Culture and Misconception on Education

Seong-Yeul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Although actual numbers of school administrators and teachers involved in corruption and misbehaviors in education are few, they exert an important effect on many Korean parents and students directly or indirectly. Therefore many researches and symposiums have been held recently to correct these phenomena. But the main theme of these efforts focus on the educational system and teachers. This article dealt with parents' misconceptions about education and the cultural basis which fosters these misconception.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oriental culture might be summarized as collectivism and relation/situation-orientedness. The main features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may be characterized as collectivity, emotionality, shamanism and confucious tradition. Therefore in Korea the views, needs and goals of the ingroup are more important than those of oneself. In these cultural climate, Korean parents keep doing misbehavior on education although they themselves know it is not good. They think that other parents also misbehave, that doing differently from other parents may exert bad effect on their children, and that to pass the very competative entrance examination to university, they have to do their best economically.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ed that one of the best way of preventing misbehaviors and corruptions in education is to encourage parents' determination that they do not misbehave, even though others do. And, Korean culture should changed in the direction of putting emphasis upon individual's needs and opinions so that traditional collectivistic value become harmonious with new individualistic value.